

광주·전남 자영업자 '연체 늪' 걱정된다

다중채무자 대출 비중 22.4%·22.9% 전국 평균 상회 코로나19 여파 불황 장기화 땀 만기내 상환 어려울 듯

올해 광주·전남 자영업자 5명 중 1명 꼴로는 빚이 3가지 이상인 '다중채무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대규모 연체가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1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김영은 조사역이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지역 자영업자의 다중채무자 대출 비중은 광주 22.4%·전남 22.9%로, 모두 전국 평균(20.8%) 보다 높았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를 말한다. 돈을 빌릴 여력과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 여러 기관에 대출을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해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기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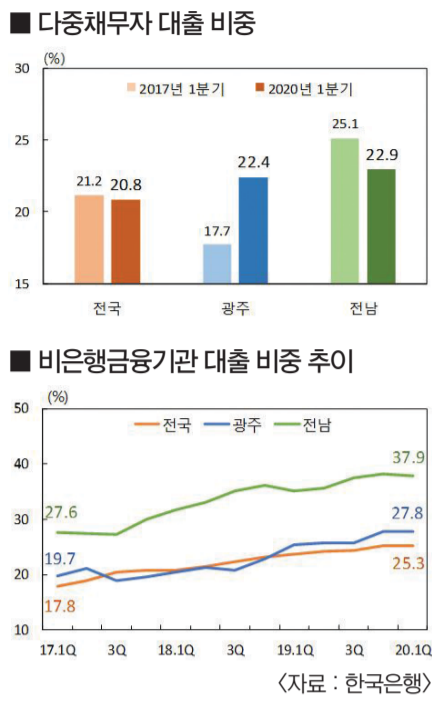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광주 27.8%·전남 37.9%, 역시 전국 평균(25.3%)을 훌쩍 넘었다.

1년 전 비은행 대출 비중과 비교하면 광주는 2.4%포인트, 전남은 2.8%포인트 오른 수치다.

최근 3년 동안 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1분기부터 2020년까지 연 평균 대출 증가율은 광주 8.2%·전남 16.9%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 대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14.3%)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1억5000만원 가량(광주 1억7000만원·전남 1억2000만원) 빚을 지고 있었다. 대출 연체율은 광주 0.40%, 전남 0.27%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돈을 빌려 인건비나 재료비 등 급한 불을 끄고 있다는 데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황이 장기화하면 자영업자들이 만기 안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높은 폐업률과 낮은 매출액을 보고 알 수 있다. 광주 폐업률은 13.9%로, 전국 평균(12.3%)을 웃돈다. 전남지역 폐업률은 11.8%이다.

지난 한 해 동안만 문을 닫은 자영업자는 광주 2만3313명·전남 2만7157명 등 5

만명이 넘는다. 전국 폐업자 83만884명의 6.1% 수준이다.

자영업체 가운데 간이사업자 비중은 광주 28.2%·전남 27.4%로 전국 평균(24.0%)보다 크고, 평균 종사자 수(각각 2.27명, 2.15명)도 전국 평균(2.31명)보다 적어 영세업체의 비중이 큰 편이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업의 비중(광주 48.4%, 전남 56.9%)이 크고 제조업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지역 자영업체 수는 광주 9만3000개·전남 12만1000개 등 21만4000개로, 전체 사업체의 77.3% (광주 78.0%·전남 76.9%)를 차지했다.

김 조사역은 "코로나19가 글로벌 감염 사태로 확산함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자영업의 업황이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며 "특히 광주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 이후 확진자가 증가해 부진이 지속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책적 대안으로 창업지원 및 교육 강화, 지역 내 자영업 지원을 위한 통계기반(DB) 자료 부족 해소, 디지털 네트워크 조성, 금융지원 확대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2201.88 (+18.27) | ↓ 금리(국고채 3년) 0.847 (-0.007) |
| ↑ 코스닥 781.29 (+2.90) | ↓ 환율(USD) 1200.50 (-5.20) |

'코로나 고용 절벽' 내몰린 일용직·30대

2분기 일용직 취업자 6만5천명...전년비 19% 감소

호남통계청 광주·전남 고용동향

올해 2분기 광주·전남지역 '코로나 고용 절벽'은 일용근로자와 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4·6월 지역 일용근로자 취업자 수는 광주 2만6000명·전남 3만9000명 등 6만5000명으로, 1년 전 보다 무려 1만5000명(18.8%) 감소했다.

올 2분기 일용근로자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를 낸 1989년 동분기(14만명) 이후 가장 적었다.

올해 2분기(4·6월) 지역 일용근로자 취업자 수는 전분기(1·3월)와 비교해 광주는 3000명 감소한 2만6000명이었고, 전남은 7000명 줄어든 3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이 취약한 일용근로자 일자리의 수가 2분기 들어 더 줄었다는 뜻이다.

임시근로자 취업자 역시 2분기 광주 13만명·전남 17만7000명 등 30만7000명으로, 1년 전(32만7000명) 보다 2만명 줄었다. 반면 광주·전남 상용근로자 2분기 취업자 수는 80만6000명으로, 지

난해(77만9000명) 보다 2만7000명 증가했다.

연령대 별로 보면 30대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와 비교한 2분기 취업자 감소폭은 30대가 광주 1만2000명·전남 7000명 등 무려 1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30대 이의 감소한 취업자 수는 50대(-8000명), 15-19세(-1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7000명 늘었고, 60대는 2만5000명 증가했다.

광주지역 고용률은 올 들어 4개월째 '마이너스'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지역 고용률은 광주 59.2%·전남 65%로, 1년 전 보다 각각 0.4%포인트 줄고, 1.5%포인트 증가했다.

광주지역 고용률은 지난 3월(-1.0%포인트)부터 4월(-1.0%포인트), 5월(-0.5%포인트), 6월(-0.4%포인트)까지 4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실업률은 광주 4.2%, 전남 2.2%로, 광주지역은 지난 4월부터 4%대 실업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건전성 갖출 것"

하반기 추진 전략

내실경영 강화
지역밀착 경영 확대
디지털 역량 제고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15일 지역밀착 경영 확대와 비대면 시대 디지털 역량 제고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광주은행은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2020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전략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5-20일 영업 본부 별로 진행됐다. 이날에는 상반기 우수 직원 시상식이 이뤄졌다.

광주은행은 올 하반기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춘 '리딩뱅크'로의 도약을 위해 하반기 중점 추진전략을 탄탄한 내실경영 강화, 지역밀착 경영 확대, 디지털 역량 제고로 압축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수익성·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한 탄탄한 내실경영 강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과 포용금융 경영컨설팅 지원 등으로 지역밀착 경영 강화 ▲새로운



송중욱(가운데) 행장이 15일 동구 대인동 은행 본점에서 열린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영업 우수점과 우수직원을 시상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디지털비즈니스 발굴과 소매신용여신 혁신, 마이데이터 사업 적극 대응 등이다.

송 행장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때임을 명심한다"며 "올 하반기 수익성·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질적성

장 추진과 지역밀착경영,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임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며 지역과 상생하는 100년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은행은 올 상반기 영업실적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전년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467억원(별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3억원) 보다 3.1%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참가자 추가 모집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빅데이터 관련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전문교육과 취업컨설팅 실무경험 등을 제공하는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참가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2기 참가자 100명을 모집한 데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0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추가모집 대상은 데이터 분석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만 19~34세 청년

으로, 학력·전공·성별·어학성적 제한 없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공공 빅데이터 기획·분석 등 전문교육을 받은 뒤 전국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3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전문교육 기간 총 45만원의 교육 지원금이 제공되고 기관에 배치된 이후 인턴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훈련지원금이 매달 180만원 지급된다.

/백기용 기자 pboxer@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청년 창업기업에 세무·회계와 기술임치에 드는 비용을 70% 내에서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방식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온라인 바우처 형태로 지급돼 사용하게 된다.

/백기용 기자 pboxe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